

## 【논문】

# 인도 논리전통에 있어서 논쟁의 시간적 전개와 관련된 몇몇 오류들에 대하여

강 성 용\*

【주제분류】 인도철학, 논리학

【주요어】 논쟁(vāda), 지는 대목(nigrahasthāna), 캐물어야 할 [말](anuyojya), 때늦은 [말](atitakāla)

【요약문】 인도 논리전통의 뿌리는 고대 인도에서 행해지던 ‘논쟁(vāda)’에서 찾을 수 있다. 엄밀한 증명의 조건과 그 인식론적 정당근거를 찾는 후대의 발전된 논의 속에서 설명되지 못한 논쟁적 오류, 즉 ‘지는 대목(nigrahasthāna)’에 연관된 몇 가지 주제들을 내용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초기 논쟁 지침서 류의 자료들인 Carakasamhitā, Nyāyasūtra, 方便心論 그리고 如實論 등의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캐물음(anuyoga)’이나 ‘캐물어야 할 [말](anuyojya)’ 등에 연관되는 주제들의 내용적인 해명을 시도한다. 여러 문헌들에 나타나는 서로 연관되면서도 많은 편차를 보이는 설명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한 해석의 틀을 시간적인 전개를 갖는 실제 논쟁의 과정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보인다. 결국 여러 연관된 오류들은 한 논쟁자가 범한 오류를 상대 논쟁자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지적하는 상황 전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간적인 연관을 기초로 또는 다른 논쟁자의 관점에서 서술한 주제들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문헌들에서 암묵적이며 다면적으로 연관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때늦은 [말](atitakāla)’, 不至時, ‘때 지난 말(kalātitavacana)’과 같은 주제들도 ‘캐묻지 말아야 할 [말](ananuyojya)’이나 於墮負處不顯墮負 혹은 ‘반대로 캐물음(pratyanyuyoga)’ 등과 함께 한 해석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음이 밝혀진다.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 I. 인도의 논쟁, 논리전통

고대 인도의 논쟁, 논리전통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도의 정신사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떠한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이 ‘논쟁(vāda)’이라는 열린 장에서 논의되는 사회적인 관행이 정착되면서, 모든 학파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론과 세계관을 논쟁을 통해 올바른 입장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정치적,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정을 얻어내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철학의 제 학파들은 자기 자신들의 세계관을 논쟁의 장에서 주장하고 또 근거지우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펼치고 반대론자의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하기 위한 반성적 사고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이론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많은 인도 고대 논쟁, 논리서가 성립되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논쟁, 논리전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엄밀한 증명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논리학적인 탐구는 물론, 증명의 근거를 밝히기 위한 인식론적인 연구로 발전하게 된다.

고대 인도의 논쟁전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인도의 논리학 전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의 선행요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도의 철학전통, 나아가 더 넓게는 인도의 제반 학술전통의 문헌들이 채택하고 있는 문서서술과 해결방식의 일반적인 모델로서 고대 논쟁전통의 면면들이 각 문헌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론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적인 틀들이 논쟁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후대 문헌들에 나타나는 형식화와 이론화를 거친 사고와 논의를 이해하는 데에도 초기의 여러 문헌들에 흩어져 있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논쟁과 논변(argument)의 모습을 밝히는 일은 중요하다. 대화와 논쟁이라는 맥락에서 고대 인도철학의 여러 주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인도의 고대 주석서들조차 종종 그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고 말았던, 인도의 논쟁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밖의 다른 많은 철학적 주제들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논쟁, 논리에 대한 체계적 저술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여러 전통들에서 사용되던 논쟁에 대한 지침서 류의 저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그 지침서들 중 완전하게 전해지는 것은 없으며, 그 대부분은 상당한 정도로 변형된 채 현존하는 문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Nyāyasūtra*(=NS)의 제1권과 5권, *Carakasamhitā*(=CaS)의 논쟁에 대한 부분, 方便心論 등이 이러한 논쟁에 대한 지침서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현존하는 문헌들일 것이다. 논쟁, 논리서의 성격상 특정한 한 논증에 대한 반대 논증이 다른 학파들에 의해 제시되면 그 반대 논증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이 논쟁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했기 때문에, 각 학파들이 전하는 논쟁지침서는 개괄적으로는 많은 공통점들을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학파나름대로의 견해에 따른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도의 초기 논쟁, 논리학에 연관된 내용들이 여러 학문분야와 학파를 가로질러 많은 문헌들에 나타난다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예로 CaS만 하더라도 인도의학(āyurveda) 총서이지만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부로 논쟁을 하는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대 인도의 논쟁전통에 대한 연구는 모든 이용 가능한 문헌 근거들을 망라한 문헌학적 비판이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어려움을 안고 있다.

## II. ‘캐물어야 할 [말](anuyojya)’과 연관된 주제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인도의 초기 논쟁, 논리서에 나타나는 몇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 이 오류들이 시간적인 전개를 갖는 논쟁을 배경으로 하여서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시간적

인 전개를 갖는 논쟁을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현존하는 문헌들에서 그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또 현대의 연구가들도 주목하지 못한 많은 주제들을 하나의 통일된 해석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존하는 모든 문헌자료들을 망라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가 연관되는 주제들에 대한 훨씬 더 적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논쟁, 논리전통이 갖는 역사적 발전의 몇 가지 흔적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다!)

- 
- 1)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의 성격과 앞서 밝힌 인도의 논쟁, 논리전통의 특성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수많은 문헌자료들이 인용되고 해석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그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아직까지 해명되지 못한 문헌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명이 부분적으로나마 시도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논지 전개가 표면적인 명확함이나 독자의 이해를 고려한 단순화된 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생산적이며 구체성 있는 인도철학에 연관된 작업이란 현재의 인도고전에 대한 연구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짐, 즉 문헌학적 비판작업과 해석작업 그리고 철학적인 이해와 체계화의 작업이라는 짐들을 동시에 지고 가야만 한다. 따라서 필자는 근거가 약한 분명함보다는 문제의 다면성과 복합성을 보여주는 난해 함의 길을 의도적으로 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을 하게된 또 다른 이유로 필자가 밝히고 싶은 것은 본 논문에서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해석의 틀이 필자가 처음 시도하고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계의 논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를 일반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소소한 부분에서도 필자가 느껴야 하는 정당화에 대한 짐이 크다는 사실이다.
- 또 한가지 필자가 본 논문의 작업에 대해 미리 언급해야 할 것은 인도 문헌의 원전에서 전문용어로 쓰이는 말들에 대한 번역의 문제이다. 인도고전학 관계 작업을 하는 학자라면 필자의 번역어들이 처음 시도되는 용어들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도고전들에 대한 통상의 번역어는 현장(玄奘) 등이 인도의 불교문헌을 한역하면서 만들어낸 한역어에서 대부분 유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어들은 동아시아권에서 기존의 인도철학적 용어들의 번역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현대적 작업에서의 번역어로 그러한 전래의 한역어들이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약하다고 본다. 기존 일본 학자들의 많은 작업들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전래의 한역어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하는 관습이 다른 편으로 연구자의 원문에 대한 물이해를 감추는 공공연한 수단으

로 쓰이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인도고전학 관계 연구자들이 동조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필자가 채택하는 번역어들이나 번역들은 너무나 학술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필자는 필자의 의도된 번역어의 창조와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인도고전학 뿐만 아니라 개념을 도구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인문학적 작업에서 한자어 계통의 어휘들과 순수 한글 계통의 어휘들이 병존하는 상황이 연관성을 가진 말들로 이루어진 개념체계의 구축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추상이나 복합어를 만드는 데에서는 당장 한자어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본 논문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노력이 장기적으로 한국어로 학문을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학문일반에 관계되는 견해와는 별개로 인도고전의 번역에 있어서 그 원어들이 어원적으로 그리고 또한 내용적으로 연관성을 보이는 개념들이라면 그 연관성을 번역어들에서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아래 논의에서 맨 처음으로 다룬 개념들, 즉 ‘캐물어야 할 [말](anuyojya)’, ‘캐묻지 말아야 할 [말](ananuyojya)’, ‘캐풀음(anuyoga)’, ‘캐묻지 않음(ananuyoga)’ 따위가 좋은 예들이다. 이 용어들은 모두 “anu-√yuj(따라서-묶다/조이다)”와 연관된 말들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번역들은 분명히 이 말들의 어원적이고 의미적인 연관성을 가능한 한 반영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지는 대목”이라는 “nigrahasthāna”에 대한 번역어의 경우에도 필자는 “ni-graha-sthāna(아래로-잡는/누르는-자리/상황)”이라는 내용상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필자는 “nigrahasthāna”를 “부처(負處)”라고 번역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동사적으로 쓰이는 “ni-√grah(아래로-잡다/누르다)”라는 표현과의 연관성이 한국어 번역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렇게 용어들의 원초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번역은, 다른 한 편으로 CaS와 같은 초기 인도의 논쟁, 논리전통에 속하는 문헌들을 근거로 후대의 체계화된 사유나 이론체계의 뿌리를 밝혀내는 작업을 주된 과제로 하는 본 논문과 같은 작업에서는 더욱 더 강한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초기의 문헌들이 보여주는 산만하거나 다의적인 용어사용은 곧 일상적인 용어를 동원한 사유의 과정에서 특별한 표현들이 전문용어로서의 고정된 핵심적 의미를 얻어가는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흔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후대의 이론체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바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쟁의 장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몇 가지 오류들의 내용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새로운 번역어 사용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번역이 구체적으로 인도고전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각 연구자들이 번역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많은 주제들 중에서 인도의학에 대한 방대한 총서인 CaS Vi. 8.50-53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 보자.

CaS Vi. 8.50: athānuyojyam – anuyojyam nāma yad vākyam  
vākyadoṣayuktam tat. sāmānyato vyāhṛteṣv artheṣu vā  
viśeṣagrahaṇārthaṁ yad vākyam tad apy anuyojyam. yathā:  
“saṃśodhanasādhyo ‘yam vyādhih” ity ukte “kim vamanasādhyo  
‘yam, kim vā virecanasādhyah” ity anuyujyate.

‘캐물어야 할 [말]’: “캐물어야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잘 못’과 연관된 말이다. 또는 [논의의] 대상들이 보편성을 근거로 해서 언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상들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불분명한) 언급도 역시 ‘캐물어야 할 [말]’[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누구인가] “이 병은 속을 비움으로써 치료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이 [병]은 토하는 것으로 치료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설사를 통해서 치료되어야 하는가?”라고 [다른 사람이] 캐묻는다.

CaS Vi. 8.51: athānanuyojyam – ananuyojyam nāmāto viparyayena  
yathā: “ayam asādhyah.”

‘캐묻지 말아야 할 [말]’: “캐묻지 말아야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즉 캐물어야 할 [말])의 반대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병]은 치료될 수 없다.”

CaS Vi. 8.52: athānuyogaḥ – anuyoga nāma sa yat tadvidyānām  
tadvidyair eva sārdhaṇ tantre tantraikadeṣa vā praśnāḥ  
praśnaikadeṣo vā jñānavijñānavacanaprativacanaparīkṣārtham ādiśyate.  
yathā: “nityaḥ puruṣaḥ” iti pratijñāte yat paraḥ “ko hetuḥ” ity

---

의 문헌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도록 강요된다는 사실이다. 불분명한 번역을 통해 문헌에 대한 작업자의 이해를 덮은 채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근거로 구체성이 있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인도고전 관계 분야의 연구자들이 필자가 제시한 번역들을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작은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란다. 만약 이러한 논의가 한국말로 작업을 하는 우리 학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철학 전통의 전문용어들에 대한 통상적인 번역 어를 부분적으로나마 만들어내고 또 그에 대한 합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aha, so 'nuyogah.

‘캐물음’: “캐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식자들이<sup>2)</sup> 식자들과 함께 [주고받는], 지식체계 혹은 지식체계의 일부에 대한 질문 또는 부분적인 질문인데 [이것들은] 지식, 전문적 지식(vijñāna),<sup>3)</sup> 말[하는 능력], 답변[하는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주장되면 상대방이 “근거는 무엇인가?”하고 묻는다. 이것이 ‘캐물음’이다.

여기서 제시된 주제들의 정확한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도 간단하지만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어원적으로 분명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 주제들에 대한 내용상의 설명들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이 주제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해석해 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틀이 제시될 수 있다면 이 해석의 틀을 통해 각 주제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상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제시된 주제들과 연관한 설명이 나오는 CaS Vi. 8.65에 따르면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yasya ananuyoga)’은 ‘지는 대목(nigrahasthāna)’을 성립시킨다. 다시 말해서, 논쟁의 과정에서 한 논쟁자가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에 해당하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 논쟁자가 ‘캐물음(anuyoga)’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 ‘캐물음’을 하지 않은 쪽의 논쟁자가 논쟁에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캐물음(anuyoga)’은 논쟁의 진행과정에서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CaS Vi. 8.50에 나타난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에 대한 설명은 몇 가지 문헌과 연관된 고려에서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매끄럽지 못한 면을 안고 있다.<sup>4)</sup> CaS Vi. 8.50에서

2) 어떤 사람들이 식자(tadvidya)들인지에 대해서는 NS 4.2.47과 Kang(2003), pp.49ff.를 보라.

3) ‘전문적 지식(vijñāna)’의 의미에 대해서는 Kang(2003), pp.44-45, n.4를 보라.

4) CaS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석인 Āyurvedadīpikā(=ĀVD)에서 짜끄라빠니 단따(Cakrapāṇidatta)가 이미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CaS Vi. 8.50은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 ĀVD, p.269b, 37: anuyojyāntaram āha sāmānyata ityādi(또 다른 ‘캐물어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은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말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은 말로 설명되었다.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에 해당하는 언급이 지나치게 일반적인 언급이어서 듣는 상대방이 그 언급에 대해 더 정확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야 할 [말]을 “sāmānyato”(이하에 설명한다)를 보라. CaS Vi. 8.50에 주어진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은 말에 대해 캐묻는 말이 반드시 궁정적인 의미에서의 캐물음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 예로 CaS Vi. 8.56 그리고 NS 1.2.10-13에 나오는 ‘말꼬기(chala)’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CaS Vi. 8.50에 나오는 “보편성을 근거로 언급된” 구체적이지 않은 말을 CaS Vi. 8.45나 NS 1.2.5에 나오는 ‘벗나감(savyabhicāra)’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결국 구체적이지 않은 말의 뒤에 어떠한 오류가 숨어있는지는 각각의 경우에 규명이 되어야 할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Oberhammer(TSI vol.1, p.61a)의 언급은 정확한 근거가 없으며 필자의 견해로는 잘못된 이해를 보이고 있다.

Man muß annehmen, daß Caraka in der Debatte sowohl eine Ausführung, die einen der fünf “Fehler der Rede” aufweist, als auch das durch eine präzisierende Frage zu Erfragende als *anuyojya* betrachtet. Als Kategorie der Disputationslehre kommt dem *anuyojya* insofern Bedeutung zu, als es im Sinne der ersten Definition in der Debatte zu vermeiden, im Sinne der zweiten Definition vorzubringen ist.

CaS Vi. 8.51에 나오는 ‘캐묻지 말아야 할 [말](ananuyojya)’에 대한 설명에서는 내용적인 이해의 실마리를 거의 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CaS Vi. 8.51에 주어지는 예는 CaS Vi. 8.50에서 불명확한 말의 예로 주어지는 것의 반대이다. 그리고 또한 ‘캐물어야 할 [말](anuyojya)’과 CaS Vi. 8.54에 주어진 ‘말의 잘못(vākyadoṣa)’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CaS Vi. 8.51에서 ‘캐묻지 말아야 할 [말](ananuyojya)’이 ‘말의 잘못(vākyadoṣa)’으로 설명된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의 반대라고 설명되고 있으며 또한 CaS Vi. 8.55에서 ‘말의 잘못(vākyadoṣa)’의 반대인 ‘말의 탁월함(vākyapraśamsa)’을 설명할 때에는 탁월한 말은 캐묻지 말아야 할 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서 ‘캐물어야 할 [말](anuyojya)’과 ‘말의 잘못(vākyadoṣa)’ 사이에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NS 2.2.12a에 나오는 “*anuyoga*”라는 말의 쓰임은 구체적이지 않은 말의 문제점이라는 함축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NS 2.2.12a가 원래 *Nyāyabhaṣya*에서 나온 문장임은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NS, p.43을 보라.

일이 논쟁의 승패와 연관될 만큼 필요불가결한 일일 수 있을까? CaS Vi. 8.50에 나오는 첫째 설명, 즉 어떤 오류를 포함하는 말을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에 해당하는 말로 들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그 오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캐물어야 한다는 요구와는 사뭇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CaS Vi. 8.50에 제시된 예는 두 번째 설명에 잘 맞는다. 하지만 CaS에 포함된 논쟁에 관계되는 부분의 다른 주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진 예는 의학적인 맥락에 맞도록 만들어 넣은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의 설명은 주어진 예와 함께 나중에 첨가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두 번째의 설명이 그에 잘 맞는, CaS Vi. 8.50-51에 주어진 의학적인 예들과 함께 나중에 첨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반드시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에 대한 내용상의 이해를 구하는 데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헌편집의 과정에서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인도 초기의 논쟁, 논리전통 안에 널리 퍼져있던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5)</sup> 따라서 필자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CaS Vi. 8.50에 나타난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모두 포괄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시해 주는 해석이다.

### III.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의 확정에 대한 문제

이제 위에서 제시된 주제들을 모두 연관시키고 또 CaS Vi. 8.50에 나오는 두 가지 설명들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의 틀을 찾는 시도를 해 보자. 이러한 시도의 실마리를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

---

5) 우리는 이와 비슷한 문제를 NS 4.2.46-50에서도 볼 수 있다. 관련된 문헌들에 대한 비교연구와 내용상의 고려 없이 문헌의 외형적인 특성만을 고려한 판단으로는 정확한 문헌의 발생과정을 찾아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하다. 자세한 논의는 Kang(2003), pp.36-37을 보라.

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어떻게 실제 논쟁의 과정에서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yasya ananuyoga)’이 나타날 수 있을까? A라고 불리는 한 논쟁자가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고 상정해 보자. 그리고 이때 상대 논쟁자인 B가 A의 말에 들어있는 오류나 문제점을 알아채지 못했거나 문제점을 무시하여 이에 대해 캐묻지 않았다고, 내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논쟁이 진행되는 중에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yasya ananuyoga)’이라는 ‘지는 대목(nigrahasthāna)’을<sup>6)</sup>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된다. 논쟁자 A가 상대방에게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yasya ananuyoga)’의 짐을 덮어씌우기 위해 자기 자신이 범한 오류에 대해 오류였다고 스스로 지적하지는 않을 것이다. 논쟁자 B는 A의 말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거나 또는 무시하였으므로 오류가 처음 나타날 때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는데 후에 이것을 지적하여 자기 스스로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의 짐을 지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yasya ananuyoga)’은 ‘지는 대목(nigrahasthāna)’으로서 논쟁에 실제로 사용되기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sup>7)</sup> NS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석서인 Nyāyabhāṣya(=NBh)에서 바차야나(Vātsyāyana)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paryanuyojyo nāma nigrahopapattyā codanīyah. tasyopekṣaṇāṁ  
 “nigrahasthānam prāpto ‘si” ity ananuyogaḥ. etac ca “kasya  
 parājaya” ity anuyuktayā pariṣadā vacanīyam, na khalu nigrahāṁ  
 prāptah svakaupīnaṁ vivṛṇuyād iti.<sup>8)</sup>

“따져 물어야 할 [점]”이라고 [NS 5.2.21이] 부르는 것은 [상대방을 눌러서 논쟁에서] 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박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 [따져 물어야 할 점]을 간과한다는 것은 “당신은

6) CaS Vi. 8.65는 ‘지는 대목’을 “상대방에게 지는 것에 이르게 되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nigrahasthānam nāma parājayaprāptih.

7) 이 문제를 Ruben도 인식하고 있다; NS, p.152를 보라.

8) NBh, p.1195, 3-5.

‘지는 대목(nigrahasthāna)’에 이르렀다”라고 따져 묻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상대방에게 졌는가?”라고 캐묻는 질문을 받게 될 청중이 말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는 대목(nigrahasthāna)’에 이르게 되어서 [논쟁에서 지게 될]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낼 리는 없기 때문이다.

바차야나의 견해에 따르면 청중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누가 오류를 범했는가를 확정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필자가 아는 한 논쟁에서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오류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인도 논쟁, 논리전통의 초기 문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바차야나의 설명이 옳다면 이 ‘지는 대목(nigrahasthāna)’은 다른 많은 ‘지는 대목’들과는 달리 논쟁자들 자신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에 의해 밝혀져야만 하는 것이 되고 만다. 또한 그에 따르는 해석상의 문제는 어떻게 청중들이 ‘지는 대목(nigrahasthāna)’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 청중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재미있게도 더욱 후대의 주석인 Nyāyavārttikatātparyatīkā(=NVTT)는 NS 5.2.21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상의 해결책을 생각해 낸 듯 하다.

tasmāt sabhāpatinā vādiprativādibhyām anuyuktayā vā pariṣadā tannigrahasthānam udbhāvaniyam.

따라서 논쟁자와 상대 논쟁자가 물어보면 회합의 대표 혹은 청중이 그의 [다시 말해서 잘못을 범한 논쟁 참가자의] ‘지는 대목’[에 해당하는 오류를] 밝혀 주어야 한다.

이 NVTT에 나타난 바짜스빠띠 미쉬라(Vācaspati Miśra)의 견해에 따르면 회합의 대표나 논쟁의 주최자 혹은 청중은 두 논쟁자가 요청을 할 때만 누가 ‘지는 대목’에 이르렀는가를 결정해 준다. 이러한 주석서의 설명은 앞서 필자가 제시하였던 문제가 이미 주석가들에 의해 인식되었으며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해결이 시도되었음을 의미한다.

## IV. Carakasamhitā와 Nyāyasūtra에 나타난 설명들에 대한 이해의 문제

NS에는 ‘캐물어야 할 [말](anuyoja)’, ‘캐묻지 말아야 할 [말](ananuyoja)’, ‘캐물음(anuyoga)’, ‘캐묻지 않음(ananuyoga)’이 독립된 주제들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NS에서는 이러한 연관된 주제들을 ‘지는 대목’들 안에 포함시켜 CaS에 나타난 이름들과는 다른 이름으로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NS 5.2.21은 ‘따져 물어야 할 것을 간과함(paryanuyojojyopekṣaṇa)’을 그리고 NS 5.2.22는 ‘캐묻지 말아야 할 것을 캐물음(niranuyojojyānuyoga)’을 설명하고 있다.

NS 5.2.21: nigrahasthānaprāptasyānigrahah paryanuyojojyopekṣaṇam.  
 ‘따져 물어야 할 것을 간과함’은 ‘지는 대목’에 이른 [상대방을 눌러서 논쟁에서] 지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NS 5.2.22: anigrahasthāne nigrahasthānābhīyogo niranuyojojyānuyogah  
 ‘캐묻지 말아야 할 것을 캐물음’은 ‘지는 대목’이 아닌 경우에 ‘지는 대목’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만약 Ruben처럼 “anuyoga”를 “공격(Angriff)”이라고 번역하면<sup>9)</sup> NS의 anuyoga는 분명히 비난 내지는 비판이지 논쟁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게 된다. NS 5.2.21-22와 비교할 때 CaS에 나오는, 관계되는 주제들에 대한 설명은 그다지 분명하지 못하다. 예로 CaS Vi. 8.52에 나오는 ‘캐물음(anuyoga)’의 예는 비

9) Ruben은 NS, p.152에서 다음과 같이 NS 5.2.22를 번역한다.

Der Angriff gegen Nicht-anzugreifendes liegt vor, wenn einer etwas als eine Tadelstelle tadelt, was keine Tadelstelle ist.

난, 비판이 아니고 단지 ‘근거(hetu)’를 묻는 질문일 뿐이다. 또한 이렇게 이해된 ‘캐물음(anuyoga)’은 ‘말의 잘못(vākyadoṣa)’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CaS Vi. 8.52에 나오는 ‘캐물음(anuyoga)’이 말의 잘못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하지만<sup>10)</sup> CaS Vi. 8.52에 제시된 예를 내용적으로 ‘말의 잘못’과 연관시켜 설명하기가 어렵다. 혹시 제시된 예가 의도하는 상황이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이 ‘근거(hetu)’를 제시하지 않고 나타난 경우라면 CaS Vi. 8.52의 예 자체는 이해가 되겠지만, 이 경우에 또 복잡해지는 문제는 CaS Vi. 8.53에 나오는 ‘반대로 캐물음(pratyanyuyoga)’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CaS Vi. 8.53: pratyanuyogah – pratyanuyogo nāmānuyogasyānuyogah.  
yathā: “asyānuyogasya punah ko hetur” iti.

‘반대로 캐물음’: “반대로 캐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캐물음의 캐물음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무엇이 그러면 이 캐물음의 근거인가?.”

즉 근거를 묻는 질문을 다시 근거를 묻는 질문으로 대꾸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CaS에 나타나는 설명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고대 인도의 여러 지적 전통들이 공유하면서도 또한 각 전통들이 나름대로 변형 발전시켜 오던 고대 인도에서 통용되던 논쟁 지침서들의 내용을 인도의학 전통이 의사들의 교육과정 안에 끌어들이면서 이루어진 추가적인 변형이 이러한 불명확한 설명을 낳은 부분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서 CaS Vi. 8.50을 다루면서 일부 밝힌 바가 그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CaS의 논쟁에 대한 부분에 포함된 내용은 사상사적으로 인도 논리전통의 주된 흐름을 이루는 냐야(Nyaya)전통에 가까우면서도 또한 NS보다는 시기적으로는 앞서며 내용적으로는 덜 체계화된 것이

---

10) 앞의 n.4를 보라.

다. 따라서 후대 냐야(Nyāya)체계에 입각한 해석을 CaS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그에 맞지 않는 설명들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sup>11)</sup> CaS에 나타난 논쟁에 연관된 주제들에 대한 서술이 논쟁에 대한 이론이 체계화되기 이전의 어떤 유동성을 가진, 이론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는 단계에 있던 개념들에 대한 비전문가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CaS에 나타난 서술들이 일관되지 못한 가운데서 드러내 주는 다면적인 서술을 인도의 초기 논리전통에 대한 귀중한 자료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다면적인 서술들의 몇 가지는 NS가 아닌 다른 논쟁, 논리전통의 문헌들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각 개념들이 갖는 일정정도의 유동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이나 ‘캐묻지 말아야 할 [말](ananuyojojya)’이 내용상 ‘캐물음(anuyoga)’ 그리고 ‘캐묻지 않음(ananuyoga)’과 연관되면서 설명될 수 있는 해석의 틀이 구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주제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는 대목(nigrahasthāna)’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연관된 많은 문헌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지는 대목’안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 문헌들에 흩어져 있는 산만한 이해들을 한 해석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 V. 논쟁의 시간적 전개를 고려하는 해석의 틀

우선 ‘캐물음(anuyoga)’을 이의제기 내지는 반론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는 것은 위의 논의에서 설명된 듯 하다. 이제는 다시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yasya ananuyoga)’이 어떻게 ‘지는 대목’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청중들의 개입이라는 추가적

---

11)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예들은 CaS에 대한 주석 ĀVD에서 자주 나타난다. Kang(2003), p.7, n.12; pp.63f.; pp.65ff.; p.68을 보라.

인 조건이 없이 생각해 보자. 한 논쟁자 A가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자. 이때 다른 논쟁자인 B가 ‘캐물음(anuyoga)’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 이미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yasya ananuyoga)’의 오류는 성립한다. 하지만 나중에 B가 이전에 A가 범했던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을 문제 삼는다면 이때 비로소 이 오류가 확정되게 된다. 이 과정에는 예사롭지 않은 문제가 개입되는데, 한 오류가 서로 다른 두 시점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분명해짐으로써 비로소 왜 이와 연관된 오류에 대한 문헌의 설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을 안고 있는지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주어진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렇게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맥락에서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yasya ananuyoga)’을 설명하려면 당연히 ‘캐물음(anuyoga)’이라는 주제를 CaS Vi. 8.58에 나오는 ‘때늦은 [말](atitakāla)’과 연관시켜야 할 것이다.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이번에는 ‘캐묻지 말아야 할 [말]을 캐물음(ananuyojyasya anuyoga)’에 대해 생각해 보자. B가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 A의 주장에 대해 이의, 내지는 반론을 제기한다. 이 경우 B의 반론이 문제가 있는 주장이 된다. 하지만 어떻게 B의 주장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논쟁의 장에 있는 제 삼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논쟁에 개입하면서 B의 반론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논쟁자인 A 자신이 자기의 주장에 문제가 없음을 논증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가능성의 문제는 ‘캐묻지 말아야 할 [말]을 캐물음(ananuyojyasya anuyoga)’을 확인하는 과정이 곧 논쟁의 과정 자체이며 논쟁의 한 부분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다.

앞서 이루어진 논의들에 기초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단순화된 논쟁과정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간 \ 논쟁자	A	B
T <sub>1</sub>	A <sub>1</sub>	
		B <sub>1</sub>
T <sub>2</sub>		B <sub>2</sub>
	A <sub>2</sub>	

시간 T<sub>1</sub>에 A라는 논쟁자가 A<sub>1</sub>이라는 주장을 한다. 상대 논쟁자인 B가 B<sub>1</sub>이라는 말로 A<sub>1</sub>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혹은 B가 시간이 흐른 후, 즉 T<sub>2</sub>에 A<sub>1</sub>에 대해서 B<sub>2</sub>라는 이의를 제기한다. A는 또한 B<sub>2</sub>에 대해서 T<sub>2</sub>에 A<sub>2</sub>로 응대한다. CaS Vi. 8.58은 ‘때늦은 [말](atītakāla)’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 첫째로는 논자가 이전에 말했어야 할 것을 나중에 말하는 것이 ‘때늦은 [말](atītakāla)’이라고 설명하고, 둘째로는 이전에 생겨난 ‘지는 대목’을 놀려 이기지 않고서 나중에야 누르는 것이 ‘때늦은 [말](atītakāla)’이라고 설명한다. 이 두 번째의 오류 ‘때늦은 [말](atītakāla)’은 바로 T<sub>2</sub>에서 바라본 B의 오류 즉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yasya ananuyoga)’이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을 현재 한역으로만 전해지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불교 논서인 如實論에<sup>12)</sup> 나오는 22개의 負處 (\*nigrahasthāna (지는 대목)) 중의 하나인 於墮負處不顯墮負가 보여준다.

十九於墮負處不顯墮負者。若有人已墮負處。而不顯其墮負。更立難欲  
難之。彼義已壞。何用難爲。此難不成就。是名於墮負處不顯墮負。<sup>13)</sup>

19. “於墮負處不顯墮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미 ‘지는 대

12) 如實論은 552-557년 사이에 眞諦에 의해서 번역되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如實論의 단편은 아마도 원본의 6분의 1정도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13) 如實論, p.35c, 26-29. Tucci (1929), pp.39, 24-40, 2는 이 대목을 아래와 같이 산스크립트으로 번역하고 있다.

paryanuyojyopekṣaṇam. yadi kaścin nigrahasthānam prāpnuyāt tasya  
nigrahāpattyayanudbhāvanam tad dūṣaṇecchayā tu dūṣaṇasthāpanam.  
tadarthe ca hine kim prayojanam dūṣaṇena. asiddham etad dūṣaṇam.  
etad ucyate paryanuyojyopekṣaṇam.

목’에 이르렀으나 그 ‘지는 대목’에 이르렀음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다시 [시간이 흐른 후에] 상대방을 비판하고 싶어서 [이미 지나간 ‘지는 대목’을] 비난하면 이것은 이미 없어졌는데 그 비판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이 비판은 성립하지 못한다. 이것을 “於墮負處不顯墮負”라고 부른다.

於墮負處不顯墮負(\*paryanuyojoyopekṣaṇa)를 NS 5.2.21과 비교해 보면於墮負處不顯墮負(\*paryanuyojoyopekṣaṇa)가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oyasya ananuyoga)’이라는 오류를 ‘때늦은 [말](atītakāla)’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CaS Vi. 8.58에 나오는 ‘때늦은 [말](atītakāla)’에 대한 두 번째 설명도 ‘때늦은 [말](atītakāla)’을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oyasya ananuyoga)’과 내용적으로 결부시키고 있다.

CaS Vi. 8.58: athātītakālam – atītakālam nāma yat pūrvam  
vācyam tat paścād ucyate. tat kālātitatvād agrāhyam bhavatiti.  
pūrvam vā nigrahapraptam anigrhya parigrhya pakṣāntaritam  
paścān nigṛhite, tat tasyātītakālatvān nigrahavacanam asamarthaṁ  
bhavatīti.

‘때늦은 [말]’: “때늦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해야 하는 것을 나중에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때가 지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다. 혹은 앞서 ‘지는 대목’에 이른 [상대방을 눌러서 논쟁에서] 지게 만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다른 주제를 [논의하던 중에] 지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때늦은 [말]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눌러서 상대방이 논쟁에서] 지게 만드는 말로 의미가 없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재미있는 것은 如實論에서의 不至時(\*aprāptakāla)(때가 안맞는 [말]))는 ‘근거(hetu)’를 말하지 않고서 주장을 하다가 반론이 제기된 다음에야 근거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sup>14)</sup> 이것은 CaS Vi. 8.52와 53이 ‘캐물음(anuyoga)’을 ‘근거(hetu)’

14) 如實論, p.35b, 10-17을 보라. 如實論, p.35b, 10-12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十不至時者. 立義已被破後時立因. 是名不至時. … (10. “때가 안맞는 [말]”이라는 것은 주장이 이미 반박된 후에야 근거를 대는 것이다. 이것을

를 묻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CaS에 체계화되지 못한 채 나타나는 단편적인 여러 설명들이 당시 특정한 주제들에 대한 이해의 일부로서 널리 퍼져있던 견해들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논쟁, 논리전통에서 ‘캐물음(anuyoga)’과 연관된 주제들이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얹힌 채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 연관성들을 살리면서 여러 주제들을 해석해 낼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요구한다.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해석의 틀이 어떤 해석상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는 동시에 이 해석의 정당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필자가 제시한 시간적인 전개를 고려하는 해석의 틀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지를 따져 보자. 논쟁자 B가 문제가 있는 발언인 A<sub>1</sub>에 대해 T<sub>1</sub>의 시간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oyasya ananuyoga)’의 오류가 발생한다. 나중에 T<sub>2</sub>에 B가 A<sub>1</sub>을 비판하면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oyasya ananuyoga)’이라는 오류가 확정된다. 이 오류는 대화의 진행과정의 일부로서 이중의 시간관련을 갖는다. 이 오류를 T<sub>1</sub>의 관점에서 보면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oyasya ananuyoga)’의 오류이다. 이 동일한 과정을 T<sub>2</sub>의 관점에서 보면 ‘때늦은 [말](atitakāla)’이 성립된다. 如實論에 나오는 於墮負處不顯墮負(\*paryanuyojoyopekṣāna)라는 오류를 T<sub>1</sub>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CaS에 나오는 혹은 NS 5.2.21에 나오는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oyasya ananuyoga)’이다. 하지만 같은 과정을 T<sub>2</sub>에서 보면 CaS Vi. 8.58에 나오는 ‘때늦은 [말](atitakāla)’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체계 없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주제들이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논쟁과정, 내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논쟁과정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서술인 것이다. 따라서 ‘캐묻지 말아야 할 [말]을 캐물음(ananuyojoyasya

---

“때가 안맞는 [말]”이라고 부른다. …). Tucci (1929), p.37, 12-13은 다음과 같이 산스크리트으로 번역하고 있다: 10. aprāptakālam. pratijñāyām duṣṭāyām paścāddhetusthāpanam aprāptakālam.

anuyoga)'과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oyasya ananuyoga)'이 CaS Vi. 8.65 안에 '때 지난 말(kālātitavacana)'과 함께 나란히 '지는 대목(nigrahasthāna)'이라는 주제 아래 나열되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니다.

## VI. 논쟁자의 연관을 다르게 설정하는 문제

CaS Vi. 8.58에 나오는 첫 번째 정의처럼 '때늦은 [말](atītakāla)'은 원래 먼저 말했어야만 할 것을 나중에야 말하는 오류를 의미했을 것이다. CaS Vi. 8.58에 나오는 두 번째 정의는 아마도 나중에 삽입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정의는 내용적으로 첫 번째 정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정의가 말하고 있는 것은 A<sub>1</sub>이 '지는 대목(nigrahasthāna)'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첫째 정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때늦은 [말](atītakāla)'에서 가리키는 먼저 말해졌어야 하는데 나중에 말해진 것이 무엇일까? 如實論이나 方便心論을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바로 '근거(hetu)'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아주 강하게 한다. 왜 '근거(hetu)'를 나중에 말하여 '때늦은 [말](atītakāla)'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如實論<sup>15)</sup>이나 方便心論<sup>16)</sup>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상대 논쟁자의 '근거(hetu)'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CaS Vi. 8.52-53에 나오는 '캐물음(anuyoga)'과 '반대로 캐물음(pratyānuyoga)'의 예들이 이러한 내용상의 연관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캐물음(anuyoga)'에 대한 예로 '근거(hetu)'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연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CaS Vi. 8.52에 제시된 '캐물음(anuyoga)'에 대한 설명은 '근거(hetu)'를 묻는 질문과의 연관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근거(hetu)'의 제시를 요구하는 질

---

15) 如實論, p.35b, 10-17.

16) 方便心論, p.25c, 1; 26a, 3-11 그리고 宇井(1925), p.527.

문을 반론이나 이의제기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 한번 필자가 제시했던 모델로 돌아가 보자. A<sub>1</sub>이 정당화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상정하자. 그러면 B<sub>1</sub>은 ‘근거(hetu)’제시를 요구하는 질문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A는 A<sub>2</sub>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A<sub>2</sub>는 이 경우 때늦게 제시된 ‘근거(hetu)’가 될 것이다. 이 경우 A는 CaS Vi. 8.58의 ‘때늦은 [말](atītakāla)’, 如實論의 不至時, 方便心論의 過時語 그리고 NS 1.2.9의 ‘때 지난 [근거](kālatīta)’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캐물음(anuyoga)’이나 ‘캐묻지 않음(ananuyoga)’은 ‘때늦은 [말](atītakāla)’이라는 오류의 추가적인 서술인 셈이 되는데, 이 ‘때늦은 [말](atītakāla)’이라는 오류는 시간적 진행의 면에서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oyasya ananuyoga)’과 거의 같은 논쟁의 진행과정에 연관된다고 보여진다.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oyasya ananuyoga)’과 ‘때늦은 [말](atītakāla)’의 차이는 문제가 되는 오류가 논쟁자 A에 연관되는가 혹은 논쟁자 B에 연관되는가의 차이이다. 논쟁의 과정에서 시간이 흐른 후에 문제가 있는 주장 A<sub>1</sub>을 다시 문제삼는 것은 그것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oyasya ananuyoga)’ 혹은 ‘때늦은 [말](atītakāla)’일 수 있다. 논쟁자 A가 그것을 하는 경우 ‘때늦은 [말](atītakāla)’이 성립될 것이고 논쟁자 B가 그것을 하는 경우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oyasya ananuyoga)’이 성립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틀을 갖고 우리는 두 쌍의 개념들, 즉 ‘캐물어야 할 [말](anuyojoya)’과 ‘캐물음(anuyoga)’ 그리고 ‘캐묻지 말아야 할 [말](ananuyojoya)’과 ‘반대로 캐물음(pratyanyuyoga)’이 갖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연관성을 다시금 눈에 띄게 할 수 있다. CaS Vi. 8.53에 나오는 ‘반대로 캐물음(pratyanyuyoga)’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어떻게 ‘근거(hetu)’를 묻는 형태의 반론에 또다시 ‘근거(hetu)’를 묻는 질문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는다. ‘반대로 캐물음(pratyanyuyoga)’이 ‘캐물음(anuyoga)’과 내용상 연관되어 있으며 문제삼을 것이 없는 주장을 전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정당

하지 않게 제기되는 ‘근거(hetu)’를 묻는 반론에 그 반론 자체의 ‘근거(hetu)’를 물음으로써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 VII.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고려

지금까지 필자가 제시한 해석을 출발점으로 하여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도를 해 보자. 고대 인도의 논쟁, 논리전통 안에 논쟁의 과정에서 뒤늦게 제시된 반박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때 서로 다른 시간과 논쟁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제화시키면서 여러 내용상 연관된 그리고 때로는 겹치는 주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다. NS 5.2.21과 22는 ‘따져 물어야 할 것을 간과함(paryanuyojyopekṣaṇa)’과 ‘캐묻지 말아야 할 것을 캐물음(niranuyojyānuyoga)’을 ‘지는 대목’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 ‘지는 대목’은 내용상 이 두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NS에 주어져 있는 설명은 순환적인 설명임을 알 수 있다. 如實論의 於墮負處不顯墮負(\*paryanuyojyopekṣaṇa)도 ‘지는 대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되고 있다는 면에서 NS와 비슷하게 일면 순환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 정의를 보여주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관찰과 사고를 근거로 왜 ‘캐물어야 할 [말](anuyojya)’, ‘캐묻지 말아야 할 [말](ananuyojya)’, ‘캐물음(anuyoga)’, ‘캐묻지 않음(ananuyoga)’의 주제들이 CaS에만 개별적인 주제들로 설명되어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CaS는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yasya ananuyoga)’과 ‘캐묻지 말아야 할 [말]을 캐물음(ananuyojyasya anuyoga)’을 ‘지는 대목’으로 제시하는데, 그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네 개의 연관된 개념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했던 것 같다. CaS가 이런 설명방식을 택하면서 ‘캐물어야 할 [말](anuyojya)’이나 ‘캐묻지 말아야 할 [말](ananuyojya)’을 개별적인 주제들로 설명하는 가운데 쉽지 않은 문제를 의식해야만 했을 것이

다. 즉 NS의 설명들이 그러하듯이 순환적인 설명을 주게 되는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CaS Vi. 8.58에 나오는 ‘때늦은 [말] (atitakāla)’의 두 번째 정의에서 우리는 NS나 如實論이 보여주는 것 같은 설명방식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캐물어야 할 [말]을 캐묻지 않음(anuyojyasya ananuyoga)’을 ‘지는 대목’으로 설명할 때 내용상 ‘때늦은 [말](atitakāla)’과 겹치게 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때늦은 [말](atitakāla)’에 대한 내용이 동요하게 되고 ‘때늦은 [말](atitakāla)’을 ‘지는 대목’의 맥락에서 이야기 할 때는 ‘때 지난 말(kalātitavacana)’이라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NS 1.2.9에 나오는 ‘때 지난 [근거] (kālātīta)’은 CaS Vi. 8.58에 나오는 첫째 정의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때 지난 [근거](kālātīta)’에 대한 설명을 갖고 NS는 NS 5.1.21과 22에 나오는 주제들과 내용상의 구분선을 긋는 데 어려움을 얻게 된 듯 하다. 이것이 NBh가 ‘때가 안 맞는 [말](aprāptakāla)’을 잘못 이해하게 된 원인이 되었을까? 최소한 NS는 다른 용어와 다른 내용의 이해를 택하였는데 NS 5.2.11에 보이는 것과 같은 ‘때가 안 맞는 [말](aprāptakāla)’이 바로 그것이다.

## 약호와 참고문헌

- 方便心論, in 『大正原版大藏經』, 大藏經刊行會; 東京 1924-1932(reprint 1983, Shin Wen Feng Chu Pan; Taipei), vol.32, No.1632.
- 如實論, in 『大正原版大藏經』, 大藏經刊行會; 東京, 1924-1932(reprint 1983, Shin Wen Feng Chu Pan; Taipei), vol.32, No.1633.
- 宇井伯壽, 1925, 『印度哲學研究』 vol.2, 岩波書店; 東京(reprint 1965, 岩波書店; 東京).
- ĀVD: Āyurvedadīpikā in CaS.
- CaS: Carakasamhitā in Vaidya Jādavaji Trikamji (ed.), *Carakasamhitā by Agniveśa revised by Charaka and Dṛidhabala, with the Āyurveda-Dīpikā Commentary of Chakrapāṇidatta*, 3rd ed.; Bombay (reprint 1984; Benares) 1941.
- Kang, Sung Yong 2003, *Die Debatte im alten Indien - Untersuchungen zum Sambhāśavidhi und verwandten Themen in der Carakasamhitā Vimānasthāna 8.15-28*, Philosophia Indica Einsichten Ansichten Bd. 6, Dr. Inge Wezler; Reinbek.
- NBh: Nyāyabhāṣya in Taranatha Nyāya-Tarkatirtha & Amarendramohan Tarkatirtha (eds.), *Nyāyadarśana with Vātsyāyana's Bhāṣya, Uddyotakara's Vārttika, Vācaspati Miśra's Tātparyatīkā & Viśvanātha's Vṛtti*, Calcutta Sanskrit Series 18-19(reprint 2nd ed. 1985,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New Delhi) 1936-1944.
- NS: Nyāyasūtra in Ruben, W.: *Die Nyāyasūtra's - Text, Übersetzung, Erläuterung und Glossar*, Deutsche Morgenländische Gesellschaft; Leipzig 1928.

NVTT: *Nyāyavārttikatātparyāṭīkā* in NBh.

TSI: *Terminologie der frühen philosophischen Scholastik in Indien - Ein Begriffswörterbuch zur altindischen Dialektik, Erkenntnislehre und Methodologie*, Bd. I. (1991) von G. Oberhammer unter Mitarbeit von Ernst Preß und Joachim Prandstetter, Bd. II. (1996) von G. Oberhammer & E. Preß & J. Prandstetter,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Wien.

Tucci, G. 1929, *Pre-Diināga Buddhist Texts on Logic from Chinese Sources*, Oriental Institute Baroda; Baroda.